

국립국악관현악단 인문학 콘서트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겸 단장
채치성

지휘
정예지
사회
정재승
AI 페르소나 '지음'
작곡/AI
(주) 포자랩스
작곡 및 편곡
이예진
김백찬
이정호
작가
김미연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25-2026

2026. 6. 26. 19:30

국립극장 달오름

프로그램북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국악관현악단 소유로 재사용(개인 SNS 및 웹사이트)이 불가합니다.

예술과 만난 AI,
인간과의 '공존'을 묻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인문학콘서트
〈공존 Survive〉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국내 최초로 로봇 지휘자를 무대에 세운 〈부재〉(2023), VR 기술을 접목한 〈관현악의 기원〉(2023) 등 예술과 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타진하는 과감한 시도를 이어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공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AI)과 예술이 어떻게 공존해 나갈 수 있을지 새로운 창작 방식을 고민하고 찾아가는 공연이다.

특히 〈부재〉가 "인간 지휘자의 부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이번 무대는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작사·작곡·협연·진행에 이르기까지 AI의 역할을 확장하며 AI가 예술적 주체이자 파트너로서 인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탐색하고자 한다.



국립국악관현악단 〈부재〉(2023)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의 기원〉(2023)

관객 감정 데이터부터
‘알고리즘 아리랑’까지,
AI와 함께 만든 5개의 신작

이번 공연의 핵심은 AI가 창작하고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하는 5개의 신작이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악계 작곡가
이예진·김백찬·이정호가 국악관현악 편곡 작업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오프닝곡 ‘데이터의 발아’는 관객 설문을 통해
수집한 감정 데이터와 음악적 선호도를 AI가 분석해
만든 작품이다. 167명이 응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안함과 두려움’ ‘휴식’ 등의 감정을 서정적이고
웅장한 국악관현악 선율로 풀어낸다. ‘알고리즘
아리랑’은 지금까지 전승된 다양한 아리랑 데이터를
AI가 제안, 인간 작곡가가 새롭게 해석해 완성한
곡이다. 익숙한 전통 선율을 현대적인 감각의
국악관현악으로 재해석해 들려준다. 이어지는

‘그대라는 기적’은 관객들이 남긴 ‘나를 위한
한마디’를 바탕으로 AI가 작사·작곡·노래협연까지
참여한 작품이다. 또 다른 곡 ‘경계의 확장’은 AI가
생성한 전자사운드와 국악관현악이 서로 협연하는
실험적인 무대로 구성된다. 공연의 마지막은 ‘공존의
울림’이 장식한다. AI의 창작과 인간 연주자의
해석이 만나 하나의 예술로 완성되는 과정을 담아낸
작품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앞에서 기술과 예술이 어떻게 서로 보완하며 공존을
이뤄낼 수 있는지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이미지 제공 (주)포자랩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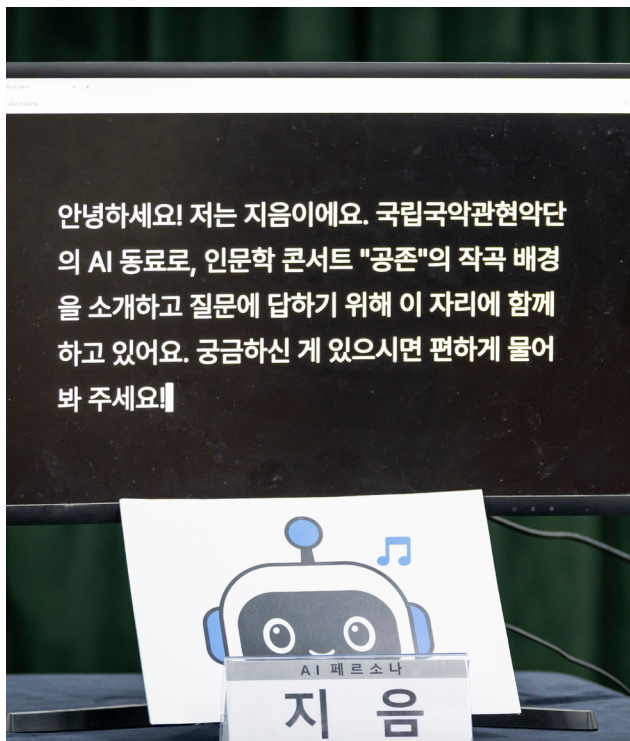
지휘자 정예지, 뇌과학자 정재승,
AI 스타트업 포자랩스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의 입체적 협업

이번 공연은 예술·과학·기술·방송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AI와 인간의 공존이라는 주제를 다각도로 풀어낸다. KAIST 뇌인지과학과 정재승 교수는 국립국악관현악단 전용 AI 페르소나 ‘지음’과 공동 사회자로 무대에 오른다. ‘지음(知音, Jeeum)’은 새로움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와 함께, 서로의 마음과 재능을 깊이 이해하는 벗을 뜻하는 고사성어 ‘지음(知音)’의 의미를 담아 설계된 AI 페르소나다. 단순히 정해진 문장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격과 성향, 가치관 등을 기반으로 구축된 대화형 AI로, 실제 공연에서도 정재승 교수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인간과 AI의 관계를 생생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기술적 주체로서의 AI와 예술적 주체로서의 인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무대 위에서 실시간으로 만나볼 수 있다.

기술 파트에는 국내 생성형 AI 음악 스타트업 (주)포자랩스가 참여했다. 포자랩스는 100만 개 이상의 자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번 공연에 사용되는 AI 창작곡을 구현했으며, AI 페르소나 ‘지음’ 개발에도 함께 참여해 공연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였다.

지휘는 <부제> 공연 당시 로봇 지휘자 에버6의 지휘 동작 학습을 담당했던 지휘자 정예지가 맡는다. 정예지는 AI가 생성한 음악 위에 인간만의 호흡과 유연한 해석을 더해 기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한다. 고정된 데이터 기반으로 생성된 음악에 순간의 감각과 호흡을 입히며 인간 연주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술적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KBS <남자의 자격> <불후의 명곡>, SBS <런닝맨> 등을 담당한 방송 작가 김미연이 구성에 참여해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기술적 담론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다. 과학·기술·예술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이번 공연은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인간과 AI가 함께 만들어가는 동시대 공연 예술의 가능성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 | | | |
|---|----------|-------------------------------------|
| 1 | 데이터의 발아 | 작곡. AI페르소나 '지음'
편곡. 이예진 |
| 2 | 알고리즘 아리랑 | 작곡. 이예진
주제제안. AI페르소나 '지음' |
| 3 | 그대라는 기적 | 작사·작곡·노래 협연. AI페르소나 '지음'
편곡. 김백찬 |
| 4 | 경계의 확장 | 작곡·사운드 협연. AI페르소나 '지음'
편곡. 김백찬 |
| 5 | 공존의 울림 | 작곡. AI페르소나 '지음'
편곡. 이정호 |

데이터의 발아
Data Overture
작곡 AI 페르소나 '지음'
편곡 이예진

작곡 노트

이 작품은 관객들이 설문을 통해 남긴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이었고, 동시에 많은 이들이 휴식과 희망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AI는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 풍경을 음악적 언어로 재해석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감정의 조각들은 국악관현악의 울림 속에서 하나의 선율로 응집되고, 어둡고 고요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음악은 점차 따뜻한 생명력을 얻으며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차가운 데이터와 인간의 감성이 만나 새로운 음악으로 피어나는 순간, 이 곡은 공연의 첫 장을 열며 인간과 기술의 공존이라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편곡노트

‘데이터의 발아’는 관객 사전 설문을 통해 집계한 감정 데이터에서 출발한 작품입니다. AI ‘지음’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안에서 ‘휴식과 희망’의 감각으로 나아가는 흐름을 생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AI가 만든 원 음원의 흐름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동아시아적 색채가 강했던 원 음원의 질감을 국악관현악의 결로 다시 빚어냈습니다. 차가운 데이터의 질감은 국악관현악의 선율과 장단, 악기 고유의 울림을 통해 보다 따뜻하고 생명력 있는 사운드로 확장됩니다.

알고리즘 아리랑
Algorithm Arirang
작곡 이예진
주제 제안 AI 페르소나 '지음'

주제 제안

사전 관객 설문에서 가장 좋아하는 국악 장르에 대한 답변으로 '민속기악'과 '민요'가 각각 1, 2위로 집계되었습니다.

두 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검색을 통해 오랜 기간 친숙한 선율과 자연스러운 장단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아리랑'을 2번째 곡의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작곡 노트

'알고리즘 아리랑'은 관객 설문에서 높은 선호를 보인 민요와 민속기악의 요소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AI '지음'이 제안한 '아리랑'이라는 주제를 새롭게 구성하여, 여러 아리랑의 선율을 엮은 하나의 국악관현악 작품으로 완성했습니다. 구조아리랑과 본조아리랑의 선율은 진도아리랑·긴아라리·정선아리랑·강원도아리랑과 교차하며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친숙한 선율의 교차와 반복을 통해, 관객의 마음속에 아리랑의 여운이 길게 남도록 하였습니다.



작·편곡 이예진

국립국악중·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및 동 대학원에서 국악작곡을 전공했다. 국제 박영희작곡상 대상 수상 및 ARKO 한국창작음악제 선정 작곡가로 활동했으며, 한국 악기의 고유한 음색과 앙상블의 밀도 변화를 바탕으로 창작과 편곡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원곡의 성격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음향적 층위와 관현악적 흐름을 구성하는 데 주목하는 작곡가다. 주요 작품으로는 〈기우〉〈깊은 밤〉 등이 있으며, 현재 서울교대, 이화여대, 한예중 음악원 등에 출강 중이다.

그대라는 기적

The Miracle Called You

작사 · 작곡 · 노래 협연 AI 페르소나 '지음'

편곡 김백찬

작곡 노트

‘그대라는 기적’은 관객들이 설문을 통해 자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위로의 말을 바탕으로 탄생한 곡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버텨보자”와 같은 진심 어린 문장들은 AI의 분석을 거쳐 국악의 시적 언어로 재탄생했고, 하나의 노랫말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객들이 일상과 가장 잘 어울리는 대중음악 장르로 선택한 ‘발라드’를 바탕으로, 국악관현악의 색채와 감성을 더한 크로스오버 형식으로 구현했습니다. 관객의 이야기가 AI의 목소리를 통해 노래가 되고, 다시 국악관현악단의 따뜻한 울림으로 확장되며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합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가장 다정한 한마디가 음악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 이 곡은 인간의 감정과 기술이 만나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위로의 가능성을 들려줍니다.

편곡 노트

일반적으로 요즘의 AI가 가장 흔하게 표현해내는 4/4박이 아닌, 6/8박의 곡 형태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지음 AI가 꽤 인상적이었다. 생각보다 섬세한 노래 표현의 애드리브와 grooving은 보통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것과 닮아있기도, 혹은 인간이면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을 거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침이 없어 보였다. 각 악기의 역할과 대선의 흐름이 자연스럽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큰 장점이 있는 듯 보였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만든 것인지, AI가 만든 것인지가 크게 구분이 가지 않는다. AI가 만든 것만으로도 그것이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조차 이미 예전의 일이 되어버린 지금, AI가 만들어 낸 노래를 받쳐주는 코드와 대선율을 국악관현악에 녹여내며, 취할 것은 취하고, 국악기에 더욱 어울릴 만한 것들은 다듬어가며 지음이 만든 음악과 현장에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편곡해 보았다.

경계의 확장

Borderline: Fusion Session

작곡·사운드 협연AI 페르소나 '지음'

편곡 김백찬

작곡 노트

‘경계의 확장’은 AI가 설계한 현대적 팝 비트와 국악관현악의 생동감 있는 연주가 만나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품입니다. 관객 설문에서 일상과 어울리는 음악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팝의 경쾌한 리듬감과, 선호하는 국악 빠르기인 자진모리장단의 역동성을 결합해 전통과 현대, 기술과 인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운드를 구현했습니다. AI가 제안한 구조 위에서 가야금, 해금, 대금 등 국악기들이 자유롭게 호흡하며 예상치 못한 에너지와 표현을 만들어내고, 연주자들의 해석과 감성이 더해지며 음악은 더욱 풍성하게 확장됩니다. 기술이 틀을 제안하고 인간이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은 이번 공연의 주제인 ‘공존’을 가장 역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충돌이 아닌 협업을 통해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내는 순간을 담아낸 곡입니다.

편곡 노트

이 곡을 편곡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점은, ‘국악 혹은 국악관현악의 대중화’다. 순수 공연 예술에 있어서 악기가 필요하면 그 악기를 불러야만 연주가 가능했고,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기가 했겠지만, 같은 시대 다른 곳, 특히 대중음악의 콘서트 혹은 무대에서의 그것은, 이미 단순히 음악뿐만이 아닌, 음악을 하는 공간에서의 연출에 필요한 여러 장치들(조명·영상·효과 등)에 의해, 반드시 약속된 타이밍이 필요로 하는 바, MTR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라이브와 결합한 시도들로 점점 진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순수예술을 옛것으로 여긴다는 의미의 말이 전혀 아니고, 국악관현악이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에 이 글의 방점이 찍혀있다. AI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번 시도가, 반드시 성공으로 관철된다기보다 다양한 시도 중의 하나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무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상상을 해보자면,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날, 소위 ‘가요무대’ ‘열린음악회’ 및 각종 대형 뮤지컬 악사석에 서양악기가 없이 국악기만으로도 편성되어 발라드, 밴드음악, 아이돌 음악의 반주를 하고, 일반 대중들이 이질감 없이 듣는 시대가 올 수도... 이것이 첫 단추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 본다.



편곡 김백찬

전통음악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이끌어온 대한민국 대표 국악·크로스오버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다. 지하철 환승역 배경음악 〈얼씨구야〉를 작곡해 국악의 대중화를 이끌었으며, 영화 〈쌍화점〉, 〈구르를 버서난 달처럼〉, 웹툰 전시회 〈나 혼자만 레벨업 전〉, 〈롯데월드 30주년 기념 메인 퍼레이드〉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립국악관현악단 리컴포즈 시리즈 〈Knock〉 작곡, 국립남도국악원 기획음반 〈나를 위한 씻김〉의 작곡 및 프로듀서로 참여하는 등 탄탄한 전통 어법 위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세련된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공존의 울림

The Harmony of Coexistence & Survive

작곡 AI 페르소나 '지음'

편곡 이정호

작곡 노트

‘공존의 울림’은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피날레 곡으로, 인간과 AI가 함께 만들어낸 여정을 하나의 음악으로 완성합니다. 관객 설문에 담긴 ‘휴식’과 ‘희망’의 감정,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가야금·대금·해금의 따뜻한 음색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깊은 위로와 안도감을 전합니다. AI가 제안한 선율과 구조 위에 작곡가와 연주자들의 해석이 더해지며, 기술과 예술,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순간을 그려냅니다. 특히 공연 전반에 흐르던 불안과 질문들은 희망과 공감의 울림으로 귀결되며,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결국 사람의 감정과 상상력이 예술의 중심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미래, 그리고 이번 공연이 전하고자 한 ‘공존’의 의미를 가장 따뜻하고 웅장하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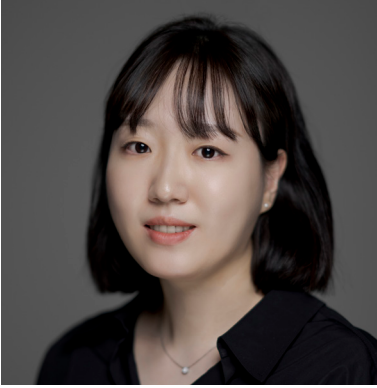
편곡 노트

‘공존의 울림’은 AI 기술을 통해 생성된 음악을 출발점으로 삼아 국악관현악의 음향 언어와 연주 미학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인공지능과 인간 창작자, 디지털 기술과 전통 예술, 미래와 과거가 서로 공존과 상생의 관계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음악적으로 탐구한다. 이 작품은 AI가 제안한 리듬과 화성적 움직임 및 선율적 소재를 그대로 재현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 국악관현악의 다양한 음색과 시김새, 호흡, 그리고 전통 악기의 표현법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창작 작품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각 악기가 지닌 고유한 음색을 활용하여 기계적으로 생성된 음악적 패턴에 인간적 호흡과 감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공존의 울림’은 단순한 편곡 작업을 넘어 AI와 인간 창작의 협업이 예술적 창조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실험이자 제안이다. 본 작품을 통해 전통음악이 첨단기술과 만나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국악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곡 이정호

전통의 깊이 위에 동시대의 감각을 더하며 한국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해온 이정호 작곡가는 ‘전통과 미래를 잇는 작곡가’라는 수식어를 받으며 활발한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다수의 ARKO한국창작음악제 작곡가 선정, KBS국악대상 작곡상과 대한민국작곡상을 수상하며 그 역량도 인정받았다. 전통의 본질을 현대적으로 확장한 그의 작품들은 깊이 있는 음악성과 풍부한 색채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지휘 정예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미국 피바디 음악원 출신의 실력과 지휘자로 전통 클래식부터 국악, 그리고 현대 기술이 접목된 실험적 무대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차세대 지휘자로 꼽힌다. 2022년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신진 지휘자 발굴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 지휘법의 조화를 탐구했고, 2023년에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로봇 지휘자 '에버6'의 보조 지휘자로서 로봇에게 지휘 동작을 학습시키는 등 기술과 예술의 융합 분야에서도 활약했다.



사회 정재승

200만 권이 넘는 베스트셀러 과학서적과 네이처 학술논문을 모두가진, 우리 시대 가장 주목할 만한 과학자. KAIST 물리학과에서 학부, 석사학위를 마치고, 복잡계 과학과 대뇌 모델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예일대 의대 정신과 연구원, 콜롬비아 의대 정신과 조교수 등을 거쳐 현재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 및 융합인재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다. 주된 연구주제는 의사결정의 신경과학, 뇌-로봇 인터페이스, 정신질환의 대뇌모델링, 대뇌 기반 인공지능 등이며, 다보스 포럼 '2009년 차세대 글로벌 리더' '대한민국 근정포장'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저서로 <정재승의 과학콘서트> <열두발자국> 등을 쓴 바 있다.



AI개발/작곡 (주) 포자랩스

인공지능 음악 생성 기술 전문 스타트업으로 2018년 설립 이후 독자적인 AI 모델을 통해 고품질의 음원을 제작, 음악 산업의 혁신을 꾀하고 있으며, 기존 음원을 무단으로 학습하지 않고 사내 전문 작곡가들이 직접 제작한 100만 개 이상의 고품질 데이터를 학습시켜 저작권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국립국악관현악단(예술감독 겸 단장 채치성)

1995년 창단된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국립극장 전속단체로 동시대의 음악을 창작하고, 수준 높은 음악으로 전 세계 관객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는 연주 단체다. 유구한 역사 속 개발되고 전승되어온 한국 고유의 악기로 편성된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국내외 저명한 작곡가 및 지휘자를 영입해 60여 명의 전속 연주자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통 음악의 현대적인 재해석, 한국의 정신과 정체성을 담은 사운드, 전 세계 관객에게 감동을 전하는 독자적인 레퍼토리로 차별화된 음악회를 기획·개발하여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국립예술단체다운 품격이 있는 공연,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국립국악관현악단만의 정체성이 담긴 공연을 목표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창작 작업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악장

안수련 (해금)

소금

김한백 부수석

대금

박경민 수석 김대곤 부수석

이재원 김병성 장광수

배근우 박병재

피리

강주희 수석 최훈정 부수석

홍지혜 부수석 (생황)

김형석 위재영 이상준

오경준(저피리)

해금

서은희 수석 김영미 장재경

노연화 이은경 허은영

지현정 이경은 변아영

가야금

문양숙 수석 김미경 부수석

송희선 부수석 임현 서희선

한향희 채운정

거문고

손성용 수석 신지희 부수석

오경자 이현경

소아쟁

김다인

대아쟁

서보람 수석 정재은 허유성

박기영 현경진

타악

연제호 수석 이유진 부수석

이승호 김예슬

양금

최취선

객원 연주자

생황

이현지

대피리

박수현

타악

고영민 김서진 장태주

건반

최민성

콘트라베이스

권혁민 김윤미

베이스기타

김용원

악보

배지운

국립극장

극장장 직무대리

김석일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겸 단장

채치성

책임프로듀서

이승재

프로듀서

이정연 이주미

총무

안은아

악기

이재석

악보

배새롬

행정인턴

최영서

악보인턴

이한빛

공연기획부

공연기획부장

이동현

전속단체공연지원팀

전속단체공연지원

팀장

채인영

전속단체공연지원팀

박양미 이종민 박명빈

물리치료실 운영

송기현

공연기획팀

공연기획팀장

권태연

행정

이용희 송성남 이소라

책임프로듀서

이재금 이서정

마케팅

홍지원 오다은

하우스매니저

이선옥 박지현 변혜진

임지은

티켓마스터

정연정 오윤지 김재경

공연안내

정지윤 이인영 이지윤

유아놀이공간

이은혜

무대예술부

무대예술부장

손후윤

무대기술팀

무대기술팀장

이정행

기술행정

김홍석

안전관리

최성훈

무대감독

양정원

기계감독

이정환

기계기술지원

김진년

조명감독·디자인

원재성

조명 프로그래머·

오퍼레이터

이준

조명기술지원

주영석 이희선

음향감독·디자인·

오퍼레이터

이상현

음향기술지원

김은희

영상감독·디자인·

오퍼레이터

임영선

무대미술팀

무대미술팀장

정복모

행정

김성식

장치감독

강정규

장치기술지원

강승구 박일천 강규한

유민석 김항원 김선우

윤하은 황인석 최재림

김강현

작화감독

김유리

작화기술지원

박순용 최다정

소품감독

김민주

소품기술지원

채수형 홍재민 박현이

장신구감독

이주선

장신구기술지원

김은경

의상감독

김효영

의상기술지원

조근하 유상현

무대예술지원센터

감독

김재영

무대예술지원센터

기술지원

한형석 김혜선 조가현

오가연

교육전시부

교육전시부장

김석일

홍보팀

홍보팀장

방강덕

행정

정재우

책임프로듀서

우다슬

홍보팀

정선영 박은영 구해나

김은채

전산

이주한 안수진 정일석

노승관

홈페이지

유정수

사진

이다빈

홍보물 및
공연영상 제작홍보물디자인

워크룸

홍보영상

스튜디오 것

옥외홍보물

대일특수

공연영상

602 스튜디오

후원 한국산업은행주최

국립극장

주관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극장 SNS

 NTOKstory ntong_ntong National Theater
of Korea(@ntong2)

국립국악관현악단 SNS

 ntoknok ntok_nok 국립국악관현악단
(@ntoknok)

WHAT'S NEXT?

세상을 바꿀 NEXT 산업을 지원합니다



오랜 소리와 앞선 기술이
한 무대에서 만난다。
공존은 가능한가？